

1 서대전 이용객 수 전체의 10% 불과	2 대전시민 KTX 이용 대전역으로 충분	3 ‘저속철’ 오명에 지역들간 큰 마찰	4 사회·경제효과 ‘뚝’ 호남선 취지 무색
------------------------------	------------------------------	-----------------------------	-------------------------------



호남 KTX 서대전역 경유 명분 없다

경부선 KTX와 비교 해보니
편수는 적고 요금은 비싸

광주·전남·전북지사 성명
경제계·시민단체 반발 확산

국토부, 광주시에 甲질 논란도

오는 3월 정식 개통하는 호남고속철 (KTX)의 서대전역 이용객이 미미해 경유 명분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호남선KTX의 운행 편수가 경부선 KTX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이용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쌀 것으로 전망돼 교통마저도 ‘지역차별이나’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을 주도한 국토교통부가 서대전역 경유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을 두고 광주시를 거세게 질타·압박한 것(甲)질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15일 관련 회의에서 호남선 KTX의 20%를 서대전역으로 경유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현실성이나 명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 행정의 기본인 광주~서대전역간 이용객이 극히 저조해사다.

2013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송정역~서대전역 이용객은 94명(송정역~용산역



오는 3월 호남고속철도(KTX·광주 송정역~용산) 완전 개통을 앞두고 경유 논란에 휩싸인 서대전역사 모습. /대전일보=빈운용 기자

865명)에 불과하다. 광주역에서 서대전까지의 이용객도 122명(광주역~용산역 116명) 뿐이다. 서대전역 이용객이 전체 승객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민은 서대전역이 아니더라도 대전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속철’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역간 마찰까지 겪으면서도 경유를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선KTX의 운행 편수도 경부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경부선 KTX는 하루 108회(편도 기준) 운행중이며, 호남선 KTX는 42회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호남선 KTX가 완전 개통(용산~송정역)되더라도 운행편수는 60회 정도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20%인 12회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경부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일 48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용운임은 대폭 늘어난다. 용산~송정역(304km) 기준 현 3만8600원(명일 어른)에서 8000여원이 추가된 4만6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1km당 154원으로, 서울~부산간

424km구간의 KTX요금(5만2900원·1km당 124원)보다 1km 기준으로 30원이나 높다. 호남선 KTX 구간이 304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부산보다 거리 대비 9120원이 나 더 내야하는 셈이다.

호남선 KTX 이용객들은 운행 편수 부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요금까지 더 지급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간부는 이날 광주시를 회의내용 유출 기관으로 지목하고, 책임 여부를 추궁하는 등 거세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3월 중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의 KTX 운행계획을 관련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2월 초까지는 확정할 방침이다.

꽃볼건 택시기사들 ▶6면

섬, 개발·보전 조화 ▶18면

한편 윤창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한 근본 취지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신속하게 연결해 고속철도를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산하는 것인데도 정부가 KTX 일부 편수를 서대전역으로 우회 운행하는 계획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충격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등도 이날 성명을 통해 “KTX경부선 개통 이후 10년 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며 서울~광주 고속철 개통을 염원해 온 만큼 서대전역 경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 성장률 15년만에 ‘마이너스’

<-1.6%p>

철강·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

IMF 사태 이후 처음

전남도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1998년 IMF 사태 이후 15년 만인 2013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쇠락세에 접어들고, 건설업마저 부진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되거나 IMF 사태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지역 내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전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전남 경제동향’ 신년호에 따르면 2013년 지역내 총생산(GRP)은 61조1000억원으로, 전년도(64조6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1.6%p)’을 기록했다. 2013년 전국 경제성장률 평균이 전년도에 비해 2.73%p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도의 부진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09~2013) 평균 성장률도 2.3%로, 전국 평균 3.1%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의 성장률은 지난 2009년 전년도에 비해 0.1%p, 2010년 7.6%p, 2011년 1.5%p, 2012년 3.8%p 각각 올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3년 석유화학은 전년도에 비해 9.5%p 상승했으나, 철강은 -8.4%p, 조선은 -28.4%p 하락했다. 건설업마저 전년도에 비해 -14.3%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기 창조경제연구실장은 “지난 1987년 광주시의 분리 여파에 의해 전년도에 비해 -18.5%p, 1998년 IMF 여파로 -8.3%p를 보인 이후 세 번째”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서울~평양~신의주~나진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추진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

평화적인 통일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본구축법(가칭)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또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 및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과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이 될 남북거래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기사 5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밝힌 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통일 준비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고, 우선 평화통일기본구축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이 법에는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



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남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상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